

책 [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]

이 광근

서울대학교

(08/21/2015 @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여름학교, 부산 동아대)+α

지금까지 반응(1/2)

- ▶ “간단명료한 설명과 쉬운 비유 덕에 이해하기 쉬웠고 (중략) 이 책보다 더 잘 표현할 자신이 없다” (고등학생 독후감대회 수상작)
- ▶ “정확하면서도 읽기 쉬운 설명에 (중략) 감탄” (SW정책연구소 연구원)
- ▶ “최대한 직관적인 용어설명이 돋보이며 구성또한 알차니다 (중략) 재미난 팟캐스트를 듣는 것 처럼 책을 읽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” (Yes24 회원리뷰)
- ▶ “최고입니다 (중략) 마치 외국의 유명 저자가 쓴 것과 같은 퀄리티” (알라딘 100자평)
- ▶ “한국어로 쉽게 쓰여졌으면서도 그만큼 통찰력있게 전산학이라는 학문을 설명한 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운” (클리어 게시판)
- ▶ “잘 엮지 못했던 개념들을 쉽게 풀어주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” (클리어 게시판 댓글)
- ▶ “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달 (중략) 쉬운 단어를 골라 사용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어가면서도 우아함을 포기하지 않는다.” (국민일보 서평)

지금까지 반응(2/2)

- ▶ “통찰력 있는 교양서이자 권위 있는 컴퓨터과학 입문서” (조선일보 서평)
- ▶ “하나의 큰 기원이 될 만한 (중략)” (고등학교 교사)
- ▶ “추상적인 개념을 시 덕분에 잘 이해할 수 있었다” (고등학생 독후감대회 수상작)
- ▶ “이 책만큼 문장이 간결하고 단순명확한 책은 못 보았습니다” (구글+ 책 세상)
- ▶ “이렇게 정보과학의 기초를 쉽게 설명하는 책은 없다”, “P와 NP (중략)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.” “몰랐던 개념들을 단번에 이해시켜주는 그런 마법을 가진 책” (네이버 블로그)
- ▶ “시 또한 처음에는 쓸모 없다고 느꼈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박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” (네이버 블로그)
- ▶ “이 책 꿀잼, 이틀만에 다 읽었네요”, “소름끼쳐요”, “너무 좋네요”, “이런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”, “국내에 이런 집필서가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”, “이 책을 대학때 읽었더라면” 등등

오타들

지금까지 3개

돌아보니 내 동기는

책 쓴 후 우연히 만난 *Why I Write*(George Orwell):

- ▶ 알리자(sheer egoism)
- ▶ 보기 좋게(aesthetic enthusiasm)
- ▶ 지금이다(historical impulse)
- ▶ 이랬으면 좋겠네(political purpose)

책에 심은 뉘앙스

- ▶ 겁먹지 마세요
- ▶ 상기해요 우리가 어땠는지
- ▶ 비밀병기가 보이세요
- ▶ 불씨가 번지길
- ▶ 드라마의 씨
- ▶ 시

뉘앙스 1: 겁먹지 마세요

- ▶ “계산이론강의의 맨 나중에 나오는 TM인데...”
- ▶ 오리지널 논문이 오히려 쉽더라 (왜?)
- ▶ “천재 튜링”, “튜링같은 천재”, 등등
 - ▶ 청소년들에게 뭘 전하러는가
 - ▶ 넘사벽? 개.뿔.
 - ▶ 선생들이 잘 전달해준 지식 덕분이었을 뿐

뉘앙스 2: 상기해요 우리가 어땠는지

1854년, 1936년, 1937년, 1948년, 1958년, 1969년 등

- ▶ 우리는 그 시절 얼마나 답답했던가
- ▶ 반복되지 말았으면

뉘앙스 3: 비밀병기가 보이세요?

전문용어를 힘을 뺀 일상의 우리말로 했을 때 얼마나 쉬운가.
우리가 즐기는/일류가 되는/이길 수 있는 힘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결국 어떻게 되는지 | asymptotic complexity |
| 데이터 뭉치기 | product type |
| 데이터 뭉뚱그리기 | sum type |
| 타입, 보통명사 | type |
| 디덕 | deduction |
| 애펙 | abduction |
| 인덕 | induction |
| 번역기 | compiler, translator |
| 기억하며 풀기 | dynamic programming |
| 질러놓고 다듬기 | iterative improvement |
| 군중에 맡기기 | crowdsourcing |
| 운에 기대면 현실적인 비용으로 풀수있는 | non-deterministic polynomial |
| 통밥, 맛을듯한 직관 | heuristic |
| 서로가 거울인 | homomorphic |
| ... | ... |

뉘앙스 4: 불씨가 번지길

- ▶ 이렇게 편하게 우리말로 전공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
- ▶ 나도 책을 써야 겠다
 - ▶ 알리자(sheer egoism): 내 세부 전공에서도
 - ▶ 보기 좋게(aesthetic enthusiasm): 재주껏
 - ▶ 지금이다(historical impluse): “지금은 300년마다 돌아오는 르네상스”
 - ▶ 이랬으면 좋겠네(political purpose): 방향, 깃발

뉘앙스 5: 드라마의 씨

몇개의 문장들은

- ▶ “이 문장 하나를 어떤 재주있는 작가가 읽는다면”
- ▶ 드라마 한 편을 상상할 수 있지않을까

어떤 문장들일까요?

뉘앙스 6: 시

새로운 발견 & 즐거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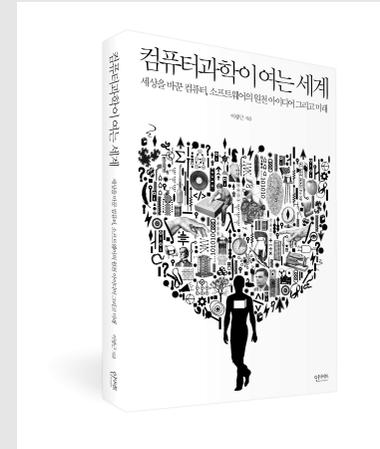
- ▶ 전공개념 = 시인들은 이미 일상어로 밀도있게 표현하고 있더라
 - ▶ 전공개념에 해당하는 일상어는 늘 있었다
 - ▶ 우리가 표현할 줄 몰랐던 것 뿐
 - ▶ 우리는 어깨의 힘을 빼야, 그래야 일류 연구가 가능
- ▶ 아하: 19세기까지 왜 “시/서/화”가 교양필수였는지

다음 책?

커버못한 컴퓨터과학의 “멋진 아이디어들”

- ▶ 프로그래밍 기술들
- ▶ 한꺼번에 동시성(concurrency, parallelism), 흩어져서 동시성(distributed systems)
- ▶ 하잔데로 맞춰주기(virtualization)
- ▶ 등등

감사합니다



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길 바랍니다